

내년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정부, 가족돌봄휴가제 신설...연 최대 10일 사용
건강·은퇴준비 근로시간 단축 신청 단계적 허용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

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도입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

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올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

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위한 계속 근로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규 입사자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됐으나 개정 시행령은 실제 양육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해 육아휴직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농어촌의 단기 계절적 수요를 고려해 신설한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고용허가제에서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지역 날씨 최저/최고/온

해돋이 07:35 해질 17:23

달돋이 23:46 달질 12:19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50 감기 조심하세요

빨래 40 실내 건조 좋아요

세차 30 급하지 않으면 미루세요

운동 70 실내 운동 즐겨요

지역 강수확률(%)

광주 20-20

목포 20-20

순천 20-20

여수 20-0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6:15 11:26

여수 00:58 07:03

13:42 19:5

지역 강수확률(%)

광주 20-20

목포 20-20

순천 20-20

여수 20-0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6:15 11:26

여수 00:58 07:03

13:42 19:5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12월 19/목 ☁ (0/5) ☁ (-4/4) ☁ (2/10) ☁ (-5/6) ☁ (-1/8) ☁ (6/9)

20/금 ☀ (-1/8) ☀ (-3/3) ☀ (1/8) ☀ (-3/5) ☀ (-1/7) ☀ (6/13)

21/토 ☀ (-1/7) ☀ (-5/4) ☀ (-1/8) ☀ (-4/6) ☀ (-2/5) ☀ (7/12)

날씨안내 : 국민없이131

광주대 호심미술관 개관 초대전

광주대학교 호심미술관이 개관을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이야기에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초대전은 그래픽과 영상, 광고, 디지털영상 등 디자인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스토리 디자인 협회 소속 21명의 작가들이 발표한 이미지와 포스터, 아이덴티티, 캘리그래피, 패키지, 개념, 캐릭터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이다.

최준호 광주대 호심미술관장은 “이번 초대전을 통해 디자인적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수준 높은 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디자인 중심 스토리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호심미술관은 320㎡ 규모로 전시장과 교육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전시회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힐링 건강계단 걸어요

광주 북구가 주민과 직원들의 생활속 걷기 활성화를 위해 청사를 비롯해 8개소에 계단·벽면에 자연속을 산책하는 듯한 ‘힐링 건강계단’을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오후 구청 로비에서 건강계단 조성 발대식을 마친 직원들이 예쁘게 설치된 시설물을 관람하고 있다.

광주교육연수원, 교원 역량강화 원격연수 개발

‘독립현장 가다’ 등 3종...내년 전국 교원들에 공유

광주시교육연수원은 교원 역량강화 원격연수 3종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원격연수는 ‘만주·연해주 독립의 현장을 가다’, ‘삶이 머무는

학교 공간 만들기’, ‘마을교육 공동체에 누느다’ 3종이며 콘텐츠별 15차시로 구성된 총 45차시 연수다.

교원 역량강화 원격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개발 착수에 들어간

이후 내용전문가, 검토위원, 개발자, 시범운영진들의 협업으로 3종 원격연수가 완성됐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연수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학습자 수요를 반영했다. ‘만주 연해주 독립의 현장을 가다’의 경우 블라디보스

토크 개척리, 신한촌, 우수리스크, 용정, 명동촌, 연하주, 하얼빈, 뤼순감옥 등 독립운동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촬영하고 전문가 설명을 더해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번에 개발된 콘텐츠는 2020년 1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내용심사를 거친 후 2020학년도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로 개설될 예정이며 17개 시도 교육연수원에 공유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동구 조직개편 단행...‘인문환경국’ 신설

광주 동구가 1개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이날 구의회를 통과했다.

조직개편안은 인문도시 구현과 미래교육 강화 등 역점시책을 추진하고자 인문환경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 정원은 674명에서 704명으로 30명 늘린다.

인문도시정책관, 환경정소과, 공원녹

지과를 인문환경국으로 옮기고 미래교육과를 신설한다.

인문도시정책관은 인문도시정책과, 안전관리과는 주민안전과, 공원녹지과는 푸른도시과, 행정지원과는 자치행정과로 이름을 바꾼다. 세무과는 1·2과로 분리한다.

동구 관계자는 “조직개편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 개발과 시행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송지 기자

‘북구마을 공감 페스티벌’ 내일 개최

광주 북구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북구는 “19일 오후 2시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에서 마을활동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마을 공감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마을사업을 추진했던 총 67개 마을공동체가 모두 참여해 소통과 화합 및 마을의 미래 모습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북구마을미래학교 수료식을 시작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사례 공유, 토크 콘서트, 화합 한마당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기 전남 동부권 최고 경영자 클럽 원우를 모십니다!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전남 동부권 최고 경영자 클럽은?

창조·혁신 마인드를 함양하는 고품격 강의
CEO와 리더들의 특별한 만남의 장, 인적네트워크 확장
각 분야의 성공 인물 강사진 포진, 융·복합 마인드 함양
우리 발전 방향은 우리 스스로! 에듀솔빙 워크숍
창조기획자의 든든한 지원군, 전문가 HOT-LINE

- 모집인원 100명내외
- 교육기간 2020년 1월21일(화) 개강 ~ 6월30일(화) 종강 (1년 과정, 연 12회 강차)
- 지원자격 기업경영진,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등 전문가
-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6시부터 호텔식사 제공)
- 강의장소 여수 히든베이호텔
- 수강료 280만원(부가세포함), 광주은행 016-107-391900 (주)광주매스컴
- 접수마감 2019년 12월말
- 발표및등록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4 / 010-8785-8151
- 접수방법 서류전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추후 원우회 수첩제작시 반영되므로 명확히 기재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cukbdb@naver.com 팩스 062) 650-2019
주소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구동 1-21)